

축구협회 소통위원회, 첫 회의 개최...정몽규 회장 참석

등록 2025.06.12 15:39:45 | 수정 2025.06.12 15:44:32



[서울=뉴시스] 새로 출범한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축구계 안팎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소통위원회의 첫 회의를 12일 개최했다.

소통위원회는 '팬 소통, 국민 소통'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제55대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출범됐다. 축구계와 축구팬 사이 소통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위원석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이 맡는다. ▲언론 ▲스포츠 마케팅 ▲학계 ▲공공기관 ▲게임·디지털 콘텐츠 등 각 영역 전문가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정책 제안 및 발전 방안 ▲축구 관련 각계 현안과 의견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통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협회의 정책과제와 연계한 실질적 소통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정몽규 회장이 직접 참여했다. 추후 열릴 회의에도 동참해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위 소통위원장은 "소통위원회는 그동안 축구협회가 적극적인 소통에 소홀했다는 내부 평가와 반성의 의미로 처음 신설된 기구다. 이 자리에는 그간 좋은 제안과 매서운 비판을 해주신 각계 많은 분이 자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축구협회가 다시금 축구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 명단(총 14명)

▲위원장 : 위원석(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부위원장 : 심찬구(스포티즌 대표)

▲위원 : 김가은(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전략팀장) 김양희(오앤디 엔터테인먼트/스포츠에이전시 대표) 김창금(한겨레 문화스포츠부 부장) 명왕성(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교수) 서형욱(언론인, 풋볼리스트 대표) 심상보(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TF지원단 부장) 이광용(스카이스포츠 캐스터, 전 KBS 아나운서) 임새미(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정용철(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최인기(넥슨 FC마케팅1팀 팀장) 홍재민(언론인, 레드재민TV 운영자) 황대호(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